무안 전통시장 부지 축소, 특정인 토지 특혜 의혹

3차례 변경해 수용 제외… 도로 개설땐 수십억 이익

무안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장 위치를 변경하고,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용될 예정이었던 개인 소유 토지가 부지 축소로 제외되면서 도로 개설에 따른 수십억원의 토지가격 상승 혜택을 입게 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09회 임시회에서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위치에 진출입로 개설 도로 및 주차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 5일장 부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무안읍 성내리 일원 2만2310㎡ 부지에 오는 2014년까지 국비 80억원, 군비 78억1000만원 등 158억1200만원을 들여 상설시장, 이벤트광장, 지역특산물 판매장, 옥외체험장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당초 군이 지난 2010년 발주한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에서는 사업예정토지가 2만4000㎡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면적을 30% 줄인 뒤 이번 안에서는 다시 도로 및 주차시설을 부지에 포함시켰다.

■신설되는 무안전통시장 위치도

이번 계획안에 의해 진출입로 및 주차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박모씨의 토지 3필지(818㎡)를 매입하게 되며, 박씨의 토지 주변으로 3면에 4290㎡ 면적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위치도 참조〉

박씨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전기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지 제외 및 도로 개설로 인해 수십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사업부지의 토지가격은 평당 130만~150만원에, 기존 전통시장 주변 부지는 400만~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이 조성되면 그 주변 토지가 3배 이상 급등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52)씨는 "무안군과 의회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특정인 소유 토지 가격을 올려주고 있는 셈"이라며 "시장부지 변경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당초 수용 예정된 토지보상 감정가가 13억원 정도였으나 토지주가 30억원 이상을 요구하면서 부지가 변경된 것"이라며 "토지수용과 관련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함평서 한-베트남 수교 21주년 기념 공연

한국 베트남 수교 21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재한 베트남인을 위로하기 위한 위문공연이 26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함평군과 외교부가 후원하고 재한 베트남동포위문공연행사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에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주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트남 공산당 여성동맹 주석, 베트남 대사를 비롯한 베트남 국민가수 PHAM DUC TUAN(팜 득 뚜언) 등 가수, 코미디언 30여명이 함평을 찾았다.

이번 공연은 베트남 국영TV을 통해 방영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양국 국민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재한 베트남인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국향대전이 펼쳐지는 함평군을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주민센터에 공무원 보호용 CCTV 설치

목포시, 폭행 등 사고 예방

목포시가 동 주민센터 복지창구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다.

복지창구를 찾는 생계형 민원인과 민원상담과정에서 폭행, 폭언, 기물파손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용당1동, 목원동, 동명동, 유달동, 상동 등 5개 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18개 동에도 설치했다.

민원담당 직원을 24시간 촬영하는 이 CCTV는 48만 화소 카메라 1대와 30일간 영상보관 하드디스크로 구성됐다.

정종득 시장은 "언어폭력 민원 대응을 위해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고 주민센터와 파출소 간 핫라인 연결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해남 절임배추 인기 상종가

김장철 앞두고 하루 50~100건 예약 주문

수도권 김장철을 앞두고 땅끝 해남 절임배추의 예약 주문이 늘고 있다.

2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에 지난 10일 절임배추 예약창구를 개설한 뒤 예약문의가 이어져 1일 20kg 50박스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해남군 절임배추생산자협의회 최재문(54) 회장은 "15일부터 예약을 받아 하루 평균 50~100건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생배추 가격이 낮아 절임배추 예약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김장시즌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최 회장은 예상하고 있다. 이후에는 부산과 영남권역의 예약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남절임배추 생산농가는 모두 1000여 곳으로, 군은 지난 7월 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해 품질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각종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으로 군비 1억9000여만원을 들여 모두 35만개 박스를 제작해 주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해남절임배추 매출액이 450억원"이라며 "고품질의 안전한 절임배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만큼 올해는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절임배추값은 생배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진 20kg(6~7포기) 기준 택배비 포함 3만원이며, 무농약 절임배추는 택배비 포함 3만3000원에 예약 판매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갯벌의 형이상학' 생태환경 최우수상 전남도가 녹색 전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모한 '2013 제3회 생태환경 디지털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목포시 윤상준씨의 '갯벌의 형이상학'. 공모전에선 총 21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도 제공〉

목포시, 농지 효율적 이용 실태조사

목포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다. 시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 보조원 등을 조사팀으로 구성하고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무단임대, 실제경작인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팀은 취득 후 8년이 경과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 부과와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절감

전주시, 2015년부터 3년간 160억 들여

기업 전력소비 감축·건물 에너지 관리

전주시는 27일 "2015년부터 3년 동안 160억원을 들여 첨단 전력관리 시스템인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지능형전력망 선도사업에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국비 8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능형 전력망이란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말한다.

전주시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SK텔레콤 등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전력소비 감축서비스와 공공청사의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지능형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하게 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소비 감축서비스는 전력 피크 시간대의 공장 가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10% 이상 줄이고 국가적인 전력난도 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은 공공청사 안에서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쓰지 않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조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한옥마을 등 도심에는 기존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효율성이 높은 LED로 교체한 뒤 원격 조정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도시 경관도 아름답게 꾸민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에너지 감축으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가적인 전력난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 시민의 요금 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질마재문화축제 국화길 걷기 '2013 질마재문화축제' 참가자들이 27일 고창군 부안면 국화길을 걷고 있다. 미당문학제와 함께 열리는 축제는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된다. 〈고창군 제공〉

지난해 제7회 순창장류축제 당시 장면.

"고추장 만들기 직접 체험하세요"

31일부터 순창 장류축제

강천산의 아름다운 단풍과 어머니의 깊은 장맛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제8회 순창장류축제가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 순창군 순창읍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린다.

'맛과 멋의 어울림! 건강과의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장류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31일에는 300만명 관광객 유치를 기원하는 300m짜리 장아찌 김밥 만들기와 클나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린다.

11월 1일에는 2013인분 고추장 떡볶이 만들기와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이 진행되며 '오랜 전통의 맛 비밀을 열다' 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진행된다.

2일에는 '고추장 요리경연 전국대회'와 '세상에서 가장 긴 108m 메주 만들기'를 관광객과 함께 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어린이와 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F1 세발자전거 고추장 그랑프리', '나만의 고추장 만들기', '순창고추장 역사퀴즈 맞추기' 등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한중일 합작 연극 '축/언' 전주무대 오른다

2011년 日 대지진 아픔 공유

한·중·일 공동 제작 연극 '축/언'이 11월 1일 전주 무대에 오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27일 "일본 국제교류기금, 아오모리현립미술관과 합작해 만든 '축/언'이 다음달 1일과 2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기금과 미술관이 공동으로 1억엔(한화 13억원)을 투자해 제작한 '축/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생긴 아픔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3국이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극작과 연출은 하세가와 코지 아오모리현립미술관 무대예술 총감독이 맡았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정읍, 201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요령 교육

201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정읍시는 지난 24일 농축산센터 1강의실에서 읍·면·동 매입 담당자, 농협 및 정부양곡보관 창고주를 대상으로 201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시는 참가자들에게 농가의 수분 측정기 및 계량기 등을 미리 점검해 농가에서 수매벼의 수분 함량을 13~15%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포장별 중량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가 올해 매입할 공공비축미 품종은 신동진, 황금누리 2개로 연말까지 모두 7766t을 매입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의회, 소형 농기계 면허 교육비지원 조례 통과

남원시의회는 27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따른 조례'가 지난 24일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3t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1명당 2개 기종에 한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수료 후 교육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혁신도시 9가구 무주택 장애인 특별 공급

전북개발공사는 27일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9가구를 무주택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8일부터 11월3일까지며 도내 무주택 가구주 장애인이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 무주택 가구주 기간,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등을 평가해 11월11일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문의는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나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3-280-4675)로 하면 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

남원, 건축인허가 복합민원팀 구성 운영

남원시는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의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복합민원팀(민원실무심의회)을 구성·운영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민원접수단계부터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일부터 민원실무심의회를 정례화하고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실무자 간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의회를 매일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0건의 민원을 평균 1.3일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인허가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인허가 관련법령 요약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